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성주의와 소설교육 방안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서리

구성주의와 소설교육 방안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최 서 리

논문개요

지금까지의 문학 교육은 객관주의적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사는 학습의 통제권을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배포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학습자들도 문학을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문학 능력의 신장과 문학 문화의 발전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지식과 교과,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을 새롭게 보는 구성주의적 교육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는 기존의 문학 이론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면서 개인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구성주의 이론을 국어, 문학 교과와 결합하여 수업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몇몇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연구들에서 상당한 성과를 찾을 수 있었으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먼저, 텍스트 이해와 수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소집단 협력학습에 대한 문제와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로 메타인지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학습자의 의미 이해 과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학습자 내부에서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이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개별 학습자의 텍스트 인지 활동은 텍스트 내용을 구조화하여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메타인지를 활용한 다양한 읽기 전략들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집단 협력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교사의 세밀한 지도 아래 개별 학습과 소집단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멀티미디어 체제를 이용한 수업 진행

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교수-학습에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구성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수-학습의 절차는 계획, 수업, 평가·피드백의 단계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며 세부적인 교수-학습의 단계는 개별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과 구성원들 간의 협의 과정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먼저 개별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는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진단 학습을 진행하며, 작품에 대한 개별학습자의 인지적 이해 과정이 주조를 이룬다. 두 번째 단계인 구성원들 간의 협의 과정은 소집단을 편성하고 협의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을 진행하며, 소집단 발표활동과 자기 점검 활동, 그리고 다양한 작품 감상 표현 활동을 통한 내면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V장에서는 위의 교수-학습 방안을 바탕으로 총 2차시 분량의 수업 과정안을 제작하여 실제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본 교수-학습 방안이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기에서 제안하는 소설 교육 방안이 아직 문제가 많은 문학 교육 현장에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좀더 체계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 과 교사들의 노력과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5
II. 구성주의 교육관과 7차 교육과정의 소설교육	7
1. 구성주의 교육관	7
2. 소설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 가능성	14
3.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단원 구성	15
III.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17
1. 텍스트 이해와 수용을 위한 개별 학습자의 읽기 전략	17
2. 소집단 협력 학습에 대한 고찰	20
3. 미디어 활용 수업 방안의 실행 문제	22
IV. 구성주의에 의한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안 구성	25
V. 교수-학습 방안에 따른 실제 수업 진행 활동	30
VI. 결론	76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는 문학 능력의 신장 및 문학 문화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문학 학습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대한 흥미를 함양함은 물론, 생활 속에서 능동적으로 문학 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와 우리 사회의 경우에 적용하고 또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문학 교육의 현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과거의 현실에 비해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객관주의적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습 통제권을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배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문학 수업은 상당 부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문학을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문학교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문학 목표의 달성은 지식과 교과,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교수·학습 과정을 새롭게 보는 구성주의적 교육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적 교육관은 텍스트 중심이 아닌,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위한 기본 관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체험을 살려 능동적으로 재창조하는 문학 교육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

정은 실제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기초한 다양한 소설 지도 방법이 필요한 현실이다.

바람직한 문학 교육은 산만하고 무관하게 단절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을

피하고, 지식을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심화, 확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의 문학 이론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면서 개인간의 의미구성 행위를 동시에 중시하는 구성주의 문예학에서 문학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에 의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수-학습 방안들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를 바탕으로 구성주의에 의한 소설 지도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2. 연구사 검토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학교 교육이 지식 교육에서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문학 교육 역시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존의 문학 교육은 올바른 의미 찾기에 열중한 나머지 학생들의 참여나 능동적인 의미구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학습자의 행동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구성주의적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어 왔다.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을 시도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 미학 이론을 문학 교육에 적용시킨 연구가 시도되었고 수용 이론이나 반응 중심 이론 등을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독서 방법을 제시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 그러나 문학 작품

1) 박인기, 「문학체제의 수용특성과 교수·학습의 조건」, 『산청어문』, 14·15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6.
경규진, 「반응중심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박혜경, 「소설 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노태열, 「학습자 중심의 소설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천우,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의 해석과 감상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문학 교육에서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론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의미 산출에 있어서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합성 있는 의미를 추출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구성주의 이론을 국어, 문학 교과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성주의 이론이 7차 교과서에 대폭 반영되면서 구성주의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그 교육적 효과를 살피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논문들로 이주희, 유대용, 이만석, 김성하 등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이주희²⁾는 7차 국어교과서의 문학, 소설 분야의 특성을 살피고, 설문을 통한 현장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소설 지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교과서 단원 체제에 부합하여 읽기 전 활동으로 흥미와 학습 동기 유발, 배경 지식의 활성화, 읽기 중 활동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 촉진과 다양한 반응 및 활성화, 읽기 후 활동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 확장 및 창의적 사고 촉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7차 교과서의 단원 체제에 충실한 것으로 설문 조사에서 확인했던 교과서 체제와 수업 현실과의 유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한 읽기 전, 후 활동에 비해 읽기 중 활동에 소홀한 점과, 중요한 활동인 소집단의 의사 소통 활동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좀더 치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유대용³⁾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국어와 문학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수용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에 대해 살피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을 종래의 수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대안적 방법론으로 보고

이상구, 「반응중심 문학교육에 대하여」, 『유천 신상철 박사 회갑 기념 논총』, 문양사, 1996.

2) 이주희, 「7차 국어교과서 지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3) 유대용, 「7차 문학 교육 과정의 원리를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학위논문, 2004.

이에 기초하여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계획, 진단, 수업, 평가, 내면화 단계로 구성되며 수업 단계의 활동 내용은 선행 단원과의 연관성 검토, 학습 목표 확인, 단원 학습을 통한 동기 형성,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의 과정, 그리고 읽은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읽기 과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업의 대상 텍스트의 특성 상 수업 단계 중에 읽기 활동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부분을 검증할 대안이 필요하다.

이만석⁴⁾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문학 수업 형태를 비판하고 학생들이 문학 교육의 주체가 되어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소설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구성주의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은 개별학습에서 소집단 협력학습으로 진행되며,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와 작품 이해를 위해 교사가 제작한 질문들로 구성된 보조 학습 자료가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도 읽기 전, 후 활동에 비해 읽기 활동에 대한 고찰은 소홀한 편이며,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학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읽기 과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모형이다.

김성하⁵⁾는 구성주의 수업 이론이 가지는 텍스트 중심의 주입식 문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피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터넷 신문’이라는 형식을 택하여 학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소설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활동을 제안한다. 수업은 소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는 소집단 중심의 창조 활동이 바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총 6차시 분량의 대단원 아래 1차시 분량의 수업만을 소집단 협력 학습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함으로써

4) 이만석, 「구성주의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성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 고전 소설 지도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강의식 수업을 듣고 난 후 심화학습을 위해서 소집단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형태이다.

박기혁⁶⁾은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과제 분담형 협동학습을 통한 ICT 활용을 제안하면서 문학 작품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미디어와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가정과 교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교사와 학습자의 컴퓨터 수행 능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 가지는 위험성과 수업에서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구성주의 이론이 7차 교육과정에 대폭 반영되면서 구성주의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개별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방안과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기 위한 협력 학습 방안 중, 상대적으로 협력 학습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학 작품의 특성과 수업 상황이라는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가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선정

여기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된 교수-학습 방안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특징들을 바탕으로 인지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개별 학습자의 텍스트 처리 과정과, 이를 기초로 한 학습 구성원들 간의 협의 과정,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기존의 논의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 3 국어 교과서 중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와 교과서 단원 체제 설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인지하는 개인적 구성주의 학습 과정으로서 메타인지

6)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 문학의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전략에 따른 작품 읽기과정을 거친 후, 개인적 의미를 집단에서 인정받게 하고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협력 학습 활동 과정을 제작하였다.

‘원미동 사람들’은 작품 속에 나타난 상황이 우리 주변 현실의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신들을 포함하는 현실 세계의 문제로 확대시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학습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또한, 이 작품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기 보다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학습자들마다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보게 하는 소설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형성한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사 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반대로 타인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원미동 사람들’은 구성주의적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II. 구성주의 교육관과 7차 교육과정의 소설교육

1. 구성주의 교육관

정보화 사회의 교육 체제는 교육 수요자 중심, 개인의 능력 및 인간 자아 실현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창의력과 탐구력, 통찰력, 협동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적이며 자율적인 교육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양성과 신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이론은 기존의 행동주의 이론이나 인지주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러한 기존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구성주의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교수에서 학습으로의 변화이며 구성주의는 그에 대한 실천적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학습이론이다. 구성주의는 앎의 이론, 의미 만들기, 알아가기 이론으로 각 개인이 삶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 진리요, 지식이라고 보는 것, 이런 지식과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것과 그 과정이 구성주의 학습이다.

구성주의는 지식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를 부정하고 지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학습자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구성되고 보는 학습 이론이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학습에 있어 개개인의 개인차를 인정하며 같은 내용이라도 학습자마다 다르게 그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학습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학습자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여 주관적인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⁷⁾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실제 상황과 똑같은 학습 상황을 강조하며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강조하고, 이것은 협동 학

7)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1999.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참고.

습의 강조와 다양한 교수 매체의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 되며,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개념들과 동화·조절 시키고 특정 지식과 관련된 세계를 아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 학습은 객관주의에서처럼 실생활과 유리된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과 관련되고 관심과 흥미에 근거해야 하므로 내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즉, 구성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수에서 학습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 협동 학습 환경의 활용, 학습을 돕는 조연자이자 배움을 같이 할 동료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상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는 지식의 구성 방법을 보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인 인식 과정을 중시하는 인지적 구성주의(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1) 인지적 구성주의

피아제(Piaget)는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아동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를 알게 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지적 발달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교류에 의해 생기는 결과’라고 보면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이 창조되고 재창조된다고 본다. 인간에게는 즉시 이해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 자신의 지식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고 신념, 가치, 사회 문화적 역사, 또는 기존 인식들이 인지 구조의 한 단위인 도식(스키마)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도식들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확장되며 보다 정교해진다. 인지 발달은 동화에 의해 인지적 갈등이 생기면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적

평형을 이루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학습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재편성이라고 보는 관점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지적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한 구성주의 교육의 원리는 첫째, 아동들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실제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한다. 둘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동화와 조절의 적응 과정이 일어나는 활동과 상황에 의해 인지 발달이 촉진된다. 셋째, 학습 자료와 학습활동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활동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도전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2)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Vygotsky)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교류가 인식 발달에 있어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발달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이 자력으로 독립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영역인 ‘실질적인 발달’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 발달’이다. 실질발달 수준이 아동의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의한 것이라면, 잠재적 발달 수준은 성인의 지도, 혹은 능력 있는 동료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근접발달영역’이라고 하는데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의 가능성은 바로 이 근접발달영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근접발달영역의 완전한 발달은 사회적 교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성인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협조에 의해 발달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는 개인이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 따라서 그는 의미 구성의 주체로 소집단을 강조하고, 의미 구성 과정을 ‘대화를 통한 협응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한 교실에서는 먼저 학습과 발달은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이

며, 근접발달영역은 교육과정 및 학습 계획을 세우는 지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학습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발달시키는 지식 및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나아가 학교 밖에서의 생활 경험이 학교 내에서의 생활 경험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이론은 강조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식 구성은 결국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식 구성은 구성된 지식에 대한 개인의 인지 구조 내에서의 검증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검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구성주의 학습과정

정보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지식의 수명 또한 짧으므로 단편적인 지식들을 중심으로 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나 교과서에만 의지하는 지식 전수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정보화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수많은 정보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배워갈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 즉 학습자가 중심이 된 학습방법의 학습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구성주의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문제를 접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이며 ‘학습’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구성주의의 개념에서는 개념적 지식이나 명제적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개념들을 조작하고 처리할 형식은 절차적, 방법론적 지식들이 본질적인 지식이 된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지식은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이나 방법론적 지식이 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란 결코 교사의 배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도식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교사는 그것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에도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석자로 학습자를 유도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구성주의 문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구성주의적 수업을 위해서 교사가 진행해야 할 교수-학습 과정의 강조점⁸⁾을 생각해 보자.

(1)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 강조

구성주의에 의하면 유의미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해 갈 때 가능한 것이다. 학습자의 활동이 주된 관심이며 교수 설계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설계에 관심을 가진다.

외부의 자극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과정 그 자체가 학습이며 지식이다. 지식은 외부에 실재하지 않고 학습자 개인의 문제 해결 과정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 강조되며 학습자 중심의 환경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 적성,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실질적 과제와 맥락 강조

구성주의는 맥락에서 분리된 사실적 정보 대신에 지식이 사용되는 실제적인 과제와 맥락을 강조한다. 즉, 지식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학습자들이 다루는 과제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실제적인 과제를 대할 때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벗어난 과제는 성취동기를 제공해 줄 수 없으며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다룸으로써 과제를 쉽게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그 지식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실제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박성익,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교육과학사, 1999, 2, 3, 7장 참고.

(3)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에서는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정보를 회상하는 능력, 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감지 능력, 전문가들의 실세계의 문제 해결에서의 경험하는 사고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전문적 지식을 터득하게 되며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해서 기억하게 된다. 실생활과 유리된 지식의 주입은 구성주의에서 경계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권장한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보다도 훨씬 깊이 있고 전문적이지만 학습자들은 이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 있게 스스로 성취하게 된다.

(4) 교사의 역할 변화

구성주의에 의하면 교사는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자나 촉진자가 되어야 함으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수자에서부터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촉진자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사는 절대적인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보조자이다.

그러나 지식이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학습자의 내면세계에서 저절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이란 적절한 환경에서 '교사의 안내에 의한 자주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이론은 교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이론이 아니며 오히려 창의적인 수업 태도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5) 협동 학습의 강조

비고츠키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협동 학습이 강조된다. 개개인의 지식을 구성하

는 방법이 다르므로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경험의 폭을 넓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성주의 수업에서는 동료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협동학습과 그 참여가 중시된다.

(6) 평가의 개념 및 원리 변화

구성주의에서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학습은 문제 해결 과정이며 이것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새로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주의적인 수업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교사가 전수하면 학습자들이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수-학습이었으므로 평가 역시 객관적인 지식을 물어서 얼마만큼 지식에 접근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구성주의에서는 문제 해결과정 그 자체가 학습이므로 평가의 관점 역시 달라져야 한다.

(7) 매체 사용의 강조

교수 매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인 송신자와 학습자인 수신자 사이에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교수 매체는 교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이들의 계획, 활용의 방법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인적 자원, 학습 내용, 학습 환경, 시설 기자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학습 보조물이 아니라 학습 환경 그 자체로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학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집약시켜 볼 수 있다.

- ① 전체적인 수업 단원과 과제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질문을 유도하여 그것을 활용한다.
- ② 학습자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도 수용하고 그것을 격려해 준다.

③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협동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④ 학습 과제의 수행에서 학습자의 사고, 경험 및 흥미를 활용한다.

⑤ 학습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⑥ 교사의 생각을 제시하거나 교재나 다른 자료를 통해 공부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들어본다.

⑦ 학습자들 간에 서로의 아이디어와 개념 정립에 대해 도전적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⑧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배려해 준다. 그런 경우에 학습자들이 생성해 내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존중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⑨ 학습자들이 자기를 분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실제적인 증거물을 모으고,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 자신의 사로를 재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⑩ 학습자가 실제 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구성주의 교수-학습을 위한 원칙이다. 즉,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고 환경은 협동적이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조연자이면서 배움을 같이하는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⁹⁾

2. 소설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 가능성

소설 교육을 비롯하여 국어, 문학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도구는 독해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과목의 수업 역시 독해 과정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문학, 소설 교육에 있어서 독해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

9) 강인에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1999, 제5장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학습환경.

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문학 창작 교육에 있어서 작문 과정 역시 소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해와 작문의 과정은 구성적인 활동이다. 구성주의자들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해이기도 하다. 독해와 작문과정에서 읽기와 쓰기 활동은 언제나 구성적인 과정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이며 독해와 작문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바탕이 되는 활동으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의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교육에 있어서 그 이론적 바탕으로 구성주의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미를 폭넓고 자유롭게 수용하자는 최근의 문학 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성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문학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작품의 감상 부분에 있어서 개별 독자들의 내적 의미 처리 과정과, 그렇게 형성된 의미들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구성원들의 협응을 통한 의미 구성의 과정이 그것이다. 이 두 과정을 통해 개별 독자의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된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독자를 중시함과 동시에 한계로 지적되는 문학 작품 의미의 부정적 다양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공된다.¹⁰⁾

3.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단위 구성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읽기 과정을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학생들의 스키마를 최대한 활용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읽을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유로이 말해 보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글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고 글 내용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비교

10)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67쪽.

해 보고, 글 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구조화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서 글을 세밀히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 세부 내용, 글 내용의 구조, 필요한 추리 및 상상 등의 인지적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 글 속의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를 기억하기 쉽게 구조화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계는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 처리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읽고 난 후에 글의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통합하여 자신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읽기 후 활동’을 하게 된다. 읽기 전에 동원하였던 학생 자신의 배경 지식에 교과서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받아들인 내용을 통합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 세 번째 단계이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3단원의 소단원 2에 배정된 ‘원미동 사람들’의 경우, 소설 본문 읽기 활동 전에 ‘읽기 전에’ 활동에서는 과거에 배운 소설 작품인 ‘소나기’와 ‘옥상의 민들레꽃’을 통해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읽기 활동 중 이해 과정을 거쳐, 읽은 후 활동에서는 학습 활동과 생각 넓히기를 통해 내용의 일반화와 개인적인 구성 과정의 완성을 의도하고 있다.

Ⅲ.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텍스트 이해와 수용을 위한 개별 학습자의 읽기 전략

문학 작품 수용 과정의 이해 단계는 먼저 문학 텍스트 속의 언어 기호들을 감지하여 개별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단계에서 형성된 학생들 개개인의 의미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의미 구성 방법이나 내용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합성 있는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하면서 개인 간의 의미 구성 행위를 동시에 중시하며, 일반적인 구성주의 문학 교육의 전개 과정은 우선적으로 텍스트 인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학습자는 협력 학습을 통한 소집단 활동 일체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물들에서는, 교사가 계획하는 읽기 전, 후 활동에 학습 활동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별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 작품 수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읽기 과정과 내용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는 그 과정을 통해 작품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수용 단계부터 흥미를 잃고 작품 내용의 이해와 숙지에 실패하는 학습자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에서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텍스트 인지 과정인 개인적, 인지적 구성주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정보화 사회, 지식 공유의 사회에서 사회적 소통을 통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한 소통 과정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자 내부의 지식의 구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사소통 활동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며, 지

식은 결코 학습자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점을 생각할 때 교수-학습 방안에 있어서 읽기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대상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간적 한계를 갖는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정황에 맞는 읽기 방안을 마련하거나, 과제를 통해 행한 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텍스트 인지 과정은 ‘메타 인지’의 활용과 텍스트 내용을 구조화하여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의 읽기 전략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인지의 개념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학습은 단순한 자극-반응 이상의 것이다. 학습을 위해서는 자기 조정과 성찰적 사고, 그리고 추상화를 통한 개념적 구조의 수립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메타 인지의 개념이다.

meta라는 말은 그것이 한정하는 것에 선형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그리스어의 접두어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외부로부터의’, ‘더욱 추상적인 수준’, ‘성숙된 이해’라는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의미의 말이 되었다.

메타인지는 기존의 인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의 영역이며 일반적으로는 ‘인지에 관한 지식’과 ‘인지에 관한 조절’ 두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인지에 대한 지식의 문제, 인지에 대한 앎으로 규정하거나 자신의 인지에 대한 통제와 조절로 보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지 작용과 전략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고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 지를 인식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행동과 그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략의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인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메타인지의 두 가지 측면 중 조절 및 통제의 측면에 보다 많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행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집행적 인지 과정으로서의 초인지적 측면이 강조되며 이것은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에 대한 점검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 인지는 사고 자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 자신의 사고(인지)에 대한 조절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메타 인지의 개인차는 학습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메타인지능력의 개인차는 학습 성취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메타인지능력은 인지 상태에 대한 반성적인 의식으로서 획득한 학습의 유지와 전이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갖는다. 또한 메타인지의 자기 규제적 특징은 학습자의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메타인지의 조절과 통제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지 전략으로서 학습 방법의 학습과 관련된다.¹¹⁾

메타 인지와 관련한 읽기 학습

읽기 학습 전략

문학 작품, 특히 소설 수업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은 읽기 과정이다. 학습 전략이란 대략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여 습득하고, 기억 체제 속에 있는 정보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관계 지어 저장하며, 문제 상황에 당면하거나 필요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이는 곧 개인적이고 인지적인 구성주의에 기초한 읽기 활동의 실제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의 메타 인지 과정이며, 메타 인지 활동은 인지적 구성주의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학습자 개인의 능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인지는

11) 장희정, 『정교화전략을 활용한 읽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초인지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2쪽.

개인 내면의 인지적 작용으로서 인지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학습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읽기 학습 전략은 학습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서 수업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읽기 학습 전략에는 각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학습 활동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 학습 전략에 의한 각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의 목적 및 준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훑어 보면서 학습의 동기적인 측면을 정리한다. 그리고 읽기 중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읽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읽은 후 단계에서는 학습한 정보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저자의 메시지를 조직하고 재구조화하여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교과서 단원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읽기 중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가 읽기 활동의 목표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목표 달성의 방해 요소를 감지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도와야 한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한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읽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휘가 있을 때 교사의 교정 활동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한 뒤, 재구조화 하는 과정을 통해 메타 인지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소집단 협력 학습에 대한 고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설 교육에 적용한 연구 사례들 대부분은 구성주의 이론을 고찰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형식이었다. 적용 대상이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그 하위 범주에 관계없이 각각의 연구에서는 작품의 특

성과 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 방략들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선, 각 수업 모형들마다 거의 대부분 ‘소집단 협동 학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집단 협력 학습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학습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미의 협응 과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소집단 협동 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적 수업 모형에서 반드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소집단 협동 학습 유형은 상호작용의 확대를 긴밀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으로서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¹²⁾에서 말하는 ‘소집단 학습’이란, 2~6명 내외의 학습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습자를 소집단으로 묶어 지도할 경우,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교사가 세밀하게 지도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한 교실에서 소집단 학습과 개별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학습’이란 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이 학습할 과제를 공유하며, 서로 도와 가며 학습하고 공동의 학습 결과물을 산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협력 학습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성취에 따라 집단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학습에 대한 평가 역시 집단별로 하는 것이 좋다. 집단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집단 공동학습의 형태를 강조하는 까닭은 개별적인 학습 활동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을 하나의 사회화 과정으로 보면 교실 환경 내에서 학습자 상호간, 또는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12) 교육 인적 자원부,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1999, 129쪽.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 방법 중, 소집단 협동학습은 인지적 측면에서 타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자신들의 학습을 공고히 해주고, 타당성을 검증하여 확고한 기억 체계를 수립하고 학습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성원 의식을 가지고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사회적 기능, 태도를 배양하고 자기표현의 사회적 기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효율적인 소집단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학습에 익숙해야 함은 물론 교사도 소집단 학습 지도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집단 학습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교사는 학생의 참여도가 높고 학생들의 토의 활동이나 학습 활동이 활발하며 역동적인가를 늘 살피고 평가하면서 당초의 목표와 장점을 계승하고 살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집단의 성격에 따라 능력별 동일 집단의 경우에 소집단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과제를 주어야 한다. 소집단 활동은 어디까지나 더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바라는 뜻에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단의 능력에 맞는 주제를 주어야 한다. 이질 집단의 경우에는 수준이 높은 학생이 수준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소집단이 협력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살피야 한다. 소집단 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단 자체를 변동하는 등 탄력성 있게 조정해야 학습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3. 미디어 활용 수업 방안의 실행 문제

세 번째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상호 작용의 매체로서 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오늘날 구성주의적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공학적 수업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 보조 수업 차원(CAI)¹³⁾을 벗어나 웹기반 수업(WBI),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수업 등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13) 컴퓨터가 직접 교사의 수업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는 수준과 속도로 학습을 진행시키고, 학습자-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확대된 데서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컴퓨터와 웹이라는 환경의 활용 기능이 월등히 뛰어나기도 하며, 구성주의가 추구하는 수업 환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구성주의에 의한 수업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같은 매체 환경을 통해 상호 작용 활동이 교실 내에서 뿐 아니라 교실 바깥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학습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학습 원리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 과목의 수업, 소설 수업에서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을 활용한 구성주의적 수업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¹⁴⁾

멀티미디어 체제를 이용한 수업은 학습자의 이해도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학습 양식, 인지 양식, 동기, 태도, 집중력, 읽기 속도, 학습 속도 등과 같은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이 용이하다.¹⁵⁾ 이채연¹⁶⁾은 특히 웹 기반 수업(WBI)은 기존의 교사 중심에 의한 획일적인 지식 전달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목표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웹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해 내는, 그야말로 구성주의적인 수업형태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수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차에 바탕을 둔 개별화 교육으로서의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들과는 달리 좀더 즐거운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그것을 충분히 다룰 만한 교사와 학습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환

14)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이 있다.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문학의 지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 전략」, 『어문학』, 60집, 1997.

「디지털 시대의 문학 교육」, 『문학과 교육』 5호, 문학과 교육 연구회, 1998.

15)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 교육과학사, 1997, 439쪽.

16) 이채연, 「WBI를 이용한 국어교과 개별화 수업설계와 활성화 방안」, 『국어교육』, 9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2, 169~195쪽.

경도 거기에 따라주어야 한다. 누구나 느끼듯이 매력적인 이론이 등장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현실에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언제나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접속’이 이루어진 컴퓨터 앞에서 학습자들은 게임이나 스팸, 위해 사이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수업 환경에서 이탈하게 되기 쉽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별의 가능성은 오히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학습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재미있는 수업은 좋은 수업의 요건이 될 수 있지만 매력성만 추구하다가 안전성을 잃을 위험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체와 미디어의 활용은 수업에 얼마나 잘 접합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전국 각급 학교의 교실에 정보통신망이 보급되어 많은 문학 학습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서적 참고서에서 전자 참고서로 변환된 상태에서 학습 자료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장차 이러한 웹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자료 및 교수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¹⁷⁾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품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ICT자료의 활용은 수업 도입 단계에서 동기 형성이나 학습할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190쪽.

IV. 구성주의에 의한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안 구성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의 절차를 구성하였다. 먼저, 수업의 절차는 계획, 수업, 평가·피드백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로 구성된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의 설정, 평가의 계획, 학습 제재 선정, 교수 전략 개발 및 보조 자료 선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수업 단계’에서는 소집단 편성, 학습 목표 확인, 진단 학습, 문학 작품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학습 활동, 협력 학습을 통한 협응 활동, 기타 복수 교재를 통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평가·피드백’ 단계에서는 평가 활동과 교수 프로그램의 수정, 관리, 유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교수-학습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업 단계’의 활동들에 대해 좀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과정은 개별 학습자의 소설 작품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서의 학습 단계와, 개인적 의미의 집단 인정을 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단계	개별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	1. 학습 목표 확인
		2. 진단 학습
		3. 작품에 대한 인지적 이해 과정 - 읽기 전 사고 활동 - 배경지식을 활용한 작품 이해 활동 - 메타인지에 의한 읽기 전략을 활용한 작품 이해 과정
	구성원들 간의 협의 과정	4. 소집단 편성
		5. 협의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
		6. 모둠별 발표
		7. 자기 점검 활동
		8. 다양한 작품 감상 표현 활동

1. 학습 목표 확인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왜, 무엇 때문에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면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진단 학습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단원의 길잡이’와 ‘준비 학습’이 진단단계에 해당한다. 본시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학습 요소에 대해 진단하는 단계이다. 이는 출발점 행동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진단 학습을 통하여 본시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더라도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학습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모르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다.

3. 작품에 대한 인지적 이해 과정

개별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 이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이행해야 개별 학습자는 협력 학습을 통한 소집단 활동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이나, 협력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편과 같이 짧은 제재의 경우는 해당 수업 시간에 읽기 활동을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장편의 경우는 과제로 대체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읽기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교사가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작품에 대한 효과적인 인지적 이해를 위해 메타 인지 개념을 도입하여 메타인지 전략에 의한 읽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1) 읽기 전 사고 활동

교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 이 작품의 갈래는 무엇일까?
- * 이 작품의 내용은 무엇일까?
- * 이 작품의 정보들은 어떠한 체계로 연결되어 있을까?
- *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 *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할까?
- * 그 활동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2) 배경지식을 활용한 작품 이해 활동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보충할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자.
- * 어휘 학습
- * 장르 도식 활용

3) 메타인지에 의한 읽기 전략을 활용한 작품 이해 과정

텍스트 정보의 처리 활동과 텍스트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 *메타인지전략에 따른 구조화 방략을 활용한다.
 -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텍스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한 뒤,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메타 인지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교사는 이 같은 활동에 방해 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메타 인지 조절을 위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점검한다. 이는 작품 이해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메타인지 읽기 전략에 의한 자기 조절 활동이다.
 - 이 작품의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텍스트의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의미 체계로 파악했는가?
 - 필요한 활동과 정보는 더 이상 없는가?

4. 소집단 편성

집단 구성원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각자 전 학습 과정을 수행하면서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집단 구성원은 동질 집단 보다는 이질 집단 편성이 효과적이다. 소집단 활동은 구성원 모두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 전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5. 협의 활동을 통한 협력 학습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공인된 의미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앞의 단계에서 문학 작품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의미구성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공인된 의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소집단별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협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이 단계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사고 내용을 타인에게 의미 있도록 조직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생들이 작성한 의미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질문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재구성해낸다. 정해진 답은 없으며, 학생들의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통제하는 협의 활동을 진행한다.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사회·문화적 배경 및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형성될 것이다.

*소집단별로 학생들의 역할을 선정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교사가 제작한 보조 학습 자료를 제작한다.

6. 모둠별 발표

각 소집단에서 구성한 의미를 서로 비교해 보고, 발표하는 단계이다. 타 소모임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발표하는 역할은 분담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7. 자기 점검 활동

학생들이 학습의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글을 읽을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바른 읽기 태도로 읽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집단 협력학습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숙한 독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주의에 의한 소설 지도의 가능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8. 다양한 작품 감상 표현 활동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을 작성한다. 개인별 혹은 소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을 작성하고, 작품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독서 감상 표현은 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독후감 작성 방법은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또 다시 획일적인 독후감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어 경직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상상력을 활용하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독서 감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감상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 신문, 논술 형식, 숨은그림찾기, 만화, 독서 게임, 개작, 광고 형식, 도식화, 독서 퀴즈, 작품 재구성, 퍼즐, 영작, 뒷이야기쓰기, 개사하기, 인터뷰하기, 편지로 쓰기, 작품 요약하기, 마인드 맵 등의 다양한 형식의 독서 감상 형태¹⁸⁾를 활용할 수 있다.

18) 조영식, 『창조적 독서 교육』, 인간과 자연사, 1999, 참고.

V. 교수-학습 방안에 따른 실제 수업 진행 활동

앞서 계획한 교수-학습 방안을 가지고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제 수업 활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일신여자중학교 3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급마다 2차시 분량의 실제 수업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따라 진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의 대상 작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¹⁹⁾에 수록된 「원미동 사람들」이다.

<3단원 독서와 사회>

1. 대단원 학습 목표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읽는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은 읽는 사람이 처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글을 읽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읽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작가가 어떠한 동기로 글을 썼는지, 그가 한 고민은 무엇인지, 글을 쓰게 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면 독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작가가 산 시대나 작가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을 알고 나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단원에서는 소단원 (1)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과 소단원 (2) ‘원미

19)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국어3-1, 교육인적자원부, 2005, 69~126쪽.

동 사람들’을 읽고, 읽는이의 경험이나 처한 환경,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자. 그리고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자.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6차시)>

대단원	차시	단원	교수-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3. 독서와 사회	1 ~ 3	단원의 길잡이 (1) 문학과 사회·문화의 만남		
	4	(2) 원 미 동 사람들	읽기 전 활동 -읽기 전 학습을 위한 교사와 학습자의 질의 응답	질의·응답 활동
			읽기 활동 -작품 읽기 -작품 이해를 위한 메타인지 읽기 전략 활용 (작품에 대한 구조화를 통한 이해)	개인 학습
	5	(2) 원 미 동 사람들	읽기 후 활동 -소집단 협력 학습, 학습지 활동 -소집단별 발표 활동 -자기 점검 활동 -다양한 작품 감상 표현 활동	소집단 협력 학습
6	보충·심화			

2. 지도상의 유의점

‘원미동 사람들’은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며 학생들이 작품을 읽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단정적으로 못 박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소설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미동 사람들’의 텍스트 특성상 수업 시간에 읽기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는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 수업 시간에 미리 본문을 읽어 오도록 배려한 후,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사건 전개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읽기 전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활동들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유도해 내기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제재 소개>

‘원미동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사는 도시 서민들의 애환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교과서에 실린 글은 원미동 사람들 연작 11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다. 도시 변두리의 원미동에서 동네 슈퍼 사이에 벌어지는 고객 확보 전쟁과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상점 사이의 갈등과 불화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재치 있게 환기시켜 주는 작품이다.

더불어, 본문 중에 잠시 소개되는 ‘불씨’와 ‘찾집 여자’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행복 사진관 엄시나 시골로 내려간 진만이 아버지 등은 이 부분에서는 부수적 인물에 지나지 않으나 연작 소설의 다른 부분인 ‘불씨’와 ‘찾집 여자’ 등에서는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 인물이었고, 이들의 등장은 이 소설이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연작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는 점을 알게 한다.

‘불씨’의 내용은 진만이 아버지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현재는 지하철에서 잡동사니들을 팔고 있다. 그러나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장사는 번번이 허탕을 치고 담배 한 개비 피워 물 만한 여유와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합실 짐꾼 권씨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갈 희망을 다시 찾게 된다.

‘찾집 여자’의 내용은 행복 사진관 주인 엄씨는 인삼 찾집을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찾집 여자의 옆집에 사는 경자의 귀뜸으로 엄씨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한바탕 난리를 겪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찾집 여자는 가게를 내놓고 동네를 떠난다.

3. 수업 활동

<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분)>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교사	학생		
도입	가) 전시학습을 확인한다. -문학과 사회·문화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한다. 학생들이 소설 본문을 읽어 왔는지 확인한다. 읽기 전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준비된 질문을 한다.	교사의 설명과 질문을 듣고 자유롭게 대답한다.	6'	
전개	읽기 중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지 1,2 작성을 통	37'	학습지 1,2 교과서 소설

	-정보 수집하기 -읽은 부분에 대한 활동	해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한다. 읽은 부분과 그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본문
정리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소집단 활동을 예고하고, 좌석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다.	과제 학습지를 받는다.	2'	과제 학습지

1) 읽기 전 활동

작품의 이해를 위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다. 작품 읽기의 전 단계로 작품에 대한 사전 이해,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진단학습의 내용은 이 과정에 포함시켜 진행하도록 하며, 3장에서 계획하였던 배경 지식을 활용한 작품 이해 활동 역시 이 과정에 포함시켜 진행하도록 한다.

<질의응답에 의한 학습 결과>

◎ 이 작품의 갈래는 무엇일까?

☞ 학생 활동

- ▶ 소설 - 양이 많다.
- ▶ 수필 - 원미동이 실제 있는 동네이므로, 실제 작가의 주변 이야기를 썼을 것 같다.

◎ 이 작품의 내용은 무엇일까?

☞ 학생 활동

- ▶ 원미동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야기.
- ▶ 원미동 사람들의 싸움 이야기.
- ▶ 원미동 사람들이 이웃 사람의 빚보증을 서다가 망한 이야기.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 학생 활동

- ▶ 친척집이 부천에 있어서 친근한 동네처럼 느껴진다.
- ▶ 우리 동네에서는 너무 멀다.
- ▶ 한 번도 안 가봤다.
- ▶ 어딘지 모르겠다.
- ▶ 부자 동네는 아닐 것 같다. 강남이나 분당 쪽이 잘 산다고 들었다.

◎ 이 작품의 작가 양귀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가?

☞ 학생 활동

- ▶ 없다.
- ▶ 이름을 보았을 때 여자일 것 같다.
- ▶ 나이가 많을 것 같다. 이름이 촌스러워서 옛날 이름일 것 같다.

◎ 이 작품의 작가가 창작한 다른 작품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 학생 활동

- ▶ 없다
- ▶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 공’의 제목만 들어 보았다.
- ▶ ‘천년의 사랑’ 역시 제목밖에 모른다.

◎ 나는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가게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업종의 점포가 개업해서 손님을 뺏긴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 학생 활동

▶ 더 투자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 모은다.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편의점처럼 인테리어를 바꾼다.

▶ 봉투 값을 서비스해 준다.

▶ 10% 할인 해 준다.

▶ 친한 동네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의리를 지키라고 협박한다.

▶ 다른 가게에 가서 매상을 올려주고 꼭 우리 가게를 이용해 달라고 한다.

▶ 예쁜 아르바이트 생을 쓴다.

▶ 적에 대해 잘 알아야 하므로 맞은 편 가게의 영업 시간 동안 감시해서 동네 사람 중 누가 이용하는지, 장사는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본다.

▶ 친구를 보내 염탐하게 한다. 가격이나 물건의 종류 등을 알아와서 거기에 없는 것을 들여놓고 싸게 판다.

◎ 1980년대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 학생 활동

▶ 독재 정치 시대였다. 텔레비전에서 5·18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보았다.

▶ 촘스러웠다.

▶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많았다.

▶ 인터넷이 없어서 텔레비전이 인기가 많았을 것이다.

▶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알고 있다.

<읽기 전 활동 분석>

분석 결과, 학생들은 작가 양귀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난 상황이 낯설지 않고,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들 생활 주변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 25년 전 상황인 소설 작품 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읽기 활동

이 단계는 소설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상하는 단계로서, 개인이고 인지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이다. 3장에서 말한 교수-학습 단계 중에서 메타인지전략을 활용해서 이해 과정을 돕도록 유도하는 단계인 것이다. 즉, 개별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적인 정보를 찾고, 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읽기 전 활동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서 작품을 읽는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는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학습자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어휘에 대해 지도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위에서 확인 한 것처럼 그 동안 수업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이므로 좀 더 집중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대상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소집단 활동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작품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인지전략에 따른 구조화 전략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활동을 한다.

먼저, 정보 수집하기 단계를 구성한다. 작중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활동은 인물별로 성격, 직업, 작품에서의 중요성, 기타 특성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는 활동이며, 작품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활동은 ‘원미동 사람들’을 읽으면서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이나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의 네 가지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소설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는 활동이다.

두 번째로, 좀 더 세부적인 활동으로 작품을 적당한 사건 단위로 나누어 읽은 부분에 대한 활동을 구성한다. 이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읽은 부분에 대한 활동’을 활용한다.

세 번째로, 작품의 중심 내용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제작하여 학습자들 작품에서 구성된 구조대로 다시 배열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 과정은 읽은 부분에 대한 활동이 끝나고, 학습자들이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이해한 후에 하게 되는 활동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활동하기에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과제로 활용해야 한다. 교사가 제작하여 나누어 준 활동지를 단위별로 오려서 교과서에 작품 구조대로 재배열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는 읽기 학습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읽기 활동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대상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읽기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교사는 메타인지조절을 위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점검한다.

- 이 작품의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텍스트의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의미 체계로 파악했는가?
- 필요한 활동과 정보는 더 이상 없는가?

<학습지 1 - 인물 정보 수집하기>

☞ 학생 활동 1

경호네 부부	김 반장	
충청도에서 올라옴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가게를 확장했다 몸을 사린다	형편이 어렵다 가게가 후지다 행동은 빠르다 젊다 재수가 없는 편이다 목소리가 크다, 사투리를 쓴다 지기 싫어한다 술을 많이 마신다 싱싱청과물 영업을 방해한다 욕을 잘할 것 같다	
고흥댁	시내 엄마	싱싱 청과물 사내
계산적이다 노골적이다 요령만 피운다 장사가 잘 안된다 시내 엄마를 약올린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구전부터 챙겼다	이해심이 많다 약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안다 옛되어 보인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과상이 들어온다고 하자 발끈한다 이중적이다	능력이 없다 앉아서 당하고 있는 않는다 다혈질인 것 같다 한 달만에 폐업하게 된다 희생양이다

☞ 학생 활동 2

경호네 부부	김 반장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돈 욕심이 많다 가게를 확장해서 다른 품 목을 취급함 김 반장과의 싸움은 먼저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 몸을 사린다	쪼들린다, 부양할 가족이 많다 가게가 좋지 못하다 재빠르다 재수가 없는 편이다 목소리가 크다, 사투리를 쓴다 술주정이 심하다 싱싱청과물 영업을 방해한다 심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	
고흥택	시내 엄마	싱싱 청과물 사내
결과 속이 다르다 염치가 없다 돈을 못 벌고 있다 시내 엄마를 약올린 다 이기적이다 노골적이다	착하다 김반장을 싫어한다 옛되어 보인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에게 같은 일이 닥치자 갑자기 태도 를 극과 극으로 바 꾸는다	눈치가 없다 노력은 한다 두 슈퍼의 싸움에 희생양이 되었다 한 달만에 가게 문 을 닫는다

< 학습지 2 - 소설 작품에 관한 정보 수집하기 >

☞ 학생 활동 1

사건	배경
<p>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가게를 확장함 형제 슈퍼에서 쌀과 연탄을 팔면서 가격 경쟁이 시작됨 싱싱 청과물이 개업함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싱싱 청과물의 영업을 방해함 싱싱 청과물은 결국 문을 닫음 빈 가게 자리에 전파상이 들어오게 됨</p>	<p>시간적 배경: 겨울이 깊어가던 연말 - 추위가 닥치면 그렇지가 않았다 공간적 배경: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시 원미동 23통 5반 시대적 배경: 80년대- 집집마다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유선 방송</p>
주제	인물,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
<p>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 서로를 타협해 가며 이웃 간의 정을 지키려는 삶의 모습</p>	<p>김 반장에게 - 아저씨,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팔면 되지, 경호네가 취급하던 상품까지 팔아서 경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원미동 주민들에게 -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는 아줌마들, 아줌마들 때문에 두 가게가 더 삭막해지고 마을 전체 분위기도 더 삭막해진 것 같아요.</p>

☞ 학생 활동 2

사건	배경
<p>·경호네 가게는 쌀과 연탄만 팔다가 김포 슈퍼로 가게를 확장하면서 김 반장네가 팔던 품목들을 팔기 시작했다</p> <p>·그러자 반찬거리만 팔던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역시 쌀과 연탄을 팔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p> <p>·새로 개업한 싱싱 청과물이 또 과일 이외의 부식을 팔기 시작했다.</p> <p>·싱싱 청과물에 맞서 경호네와 김 반장은 동맹 관계를 맺고 영업을 방해하여 결국 싱싱 청과물은 폐업하게 된다.</p> <p>·씨니 전자와 같은 업종의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미동 마을에는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다.</p>	<p>·80년대의 부천시 원미동 23통 5반</p> <p>- 연탄, 유선 방송, 옥상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안테나 등</p> <p>·넉넉하지 못한 동네</p> <p>-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시 원미동</p> <p>가게에 딸린 단칸방</p> <p>연탄</p>
주제	인물,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
<p>·먹고 살기 힘든 현실</p> <p>·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p>	<p>·경호네 아저씨 아주머니께</p> <p>-가게를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김 반장네 가게에서 팔던 상품까지 팔아서 한 동네 사람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p> <p>·싱싱 청과물 아저씨께</p> <p>-아저씨, 가게를 열기 전에 원미동 주변 분위기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시작하셨어야죠. 그게 아저씨의 실수였습니다.</p>

<읽은 부분과 그에 관련된 활동20>

교과서 85쪽/ 소설의 배경을 시간, 공간, 시대 등 여러 각도에서 추측해보자.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시대적 배경을 본문 속에서 찾아 답하고,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시간적 배경- 겨울

공간적 배경- 원미동 23통 5반

시대적 배경- 유선 방송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때
(1980년대)

교과서 86쪽/ 글에 나타난 원미동 마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원미동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문장을 찾아 마을의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정답다, 인정이 많다, 따뜻하다, 마을 사람끼리 서로 친하다, 소박하다, 여유롭지는 못하다

김포 슈퍼의 개업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 찾아와서
과자 한 봉지, 두부한 모라도 사 주면서 부지런한 내외의
앞날을 격려해 주었다.

교과서 87쪽/ 고흥댁이 경호네의 성공을 부러워한 이유를 원미동의 현실과 관련지어 보자.

원미동 사람들이 경호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호네의 친절, 장사 수완 등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 원미동의 경제적 현실 등 사회적인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지물포, 사진관, 전과상 등 원미동에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 형편이 좋지 못한데, 모처럼 보게 되는 사업 확장과 성공이었으므로 고흥댁이 경호네를 무척 부러워했을 것이다.

교과서 88쪽/ 김포 슈퍼의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20)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국어 3-1』, 교육인적자원부. 2005, 85~109쪽.

소설 본문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꼬마 손님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한다.

생필품 외에도 채소며 과일을 종류대로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값도 싸고, 파는 물건도 항상 싱싱하고 질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교과서 89쪽/ 김 반장의 행동으로 보아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해 보자.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김포 슈퍼의 개업에 맞서 쌀과 연탄을 취급하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김 반장의 형제 슈퍼와 경호네의 김포 슈퍼가 대립하여 갈등을 겪으며 서로 경쟁하게 될 것 같다.

교과서 90쪽/ 이 부분에서 김 반장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김 반장이 처한 상황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찾고 김 반장의 심정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는 비슷한 예를 찾아 보는 것도 좋다.

☞ 학생 활동 : 애가 탄다, 괴롭다, 가슴이 철렁하다, 불안하다, 힘겹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마을 사람들에게 서운하다, 경호네의 성공이 부럽다, 자신의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경호네가 알밋다.

교과서 91쪽/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김 반장의 이론은 어떻게 생각되는가?

김 반장의 이론을 소설 본문에서 찾도록 하고, ‘내가 마을 주민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하게 한다.

☞ 학생 활동 : 김 반장의 이론은 옳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네 쌀과 연탄을 팔아 달라는 김 반장의 요구는 마을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살다 보면 같은 업종의 가게가 마주 보며 장사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교과서 92쪽/ 내가 원미동 주민이라면 어느 가게를 이용했는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물건의 질이 좋고 값이 싼 가게를 이용했을 것이다.

형제 슈퍼를 이용했을 것이다.- 부양할 가족이 많은 김 반장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김포 슈퍼를 이용했을 것이다.- 옛정이 있으니까, 야채도 싱싱하고 깨끗이 정돈되어 있으며 인심도 넉넉하니까.

예전처럼 형제 슈퍼에서는 과일, 야채, 일용품을 사고, 김포 슈퍼에서는 쌀과 연탄을 샀을 것이다.- 어느 한 가게만 이용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야채는 질이 좋은 김포 슈퍼를, 다른 일용품은 두 가게를 번갈아 가며 이용했을 것이다.

교과서 93쪽/ 두 가게가 경쟁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자.

‘예측하기’ 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읽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 전체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두 가게 다 손해를 보게 된다.

마을 주민들만 이득을 본다.

두 가게가 경쟁을 그만두게 된다.

두 가게 중 한 가게가 문을 닫게 된다.

두 가게가 다 빚더미에 앉게 된다.

교과서 94쪽/ 고흥댁의 성격을 어떠한가?

고흥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소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이웃의 처지를 고려할 줄 모른다.

속이 좁다.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다.

자신의 욕심만 채킨다. 이기적이다.

교과서 95쪽/ 고흥택의 하소연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흥택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처지에 있는 전형적인 도시 서민으로 그려지고 있다. 고흥택을 비판함과 동시에 고흥택이 처한 상황을 통해 당시의 사회와 원미동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학생 활동 : 김 반장이나 경호네 모두 자신의 이웃인데, 전혀 이웃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채킨다.

이웃 간의 경쟁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경만 하니 한심하다.

교과서 96쪽/ 앞으로 사건 전개에 싱싱 청과물의 개업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자.

김 반장과 경호네가 경쟁하는 복잡한 마을에서 싱싱 청과물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형제슈퍼와 김포 슈퍼, 싱싱 청과물 셋이서 경쟁하게 된다.

형제 슈퍼, 김포 슈퍼가 함께 싱싱 청과물과 경쟁하게 된다.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경쟁이 사라지고, 싱싱 청과물을 견제한다.

교과서 97쪽/ 원미동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어땠을까?

싸구려 화장지, 리어카 행상, 집주인이 직접 일꾼 서넛을 데리고 일하는 가내 수공업 형태의 바지 공장 등 원미동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엿볼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 본다.

☞ 학생 활동 :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가난하다, 생활이 어렵다.

교과서 97쪽/ 형제 슈퍼를 중심으로 싱싱 청과물의 위치를 그려 보자.

이 활동은 작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개입하여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서울 미용실까지는 그럭저럭 큰길에서 내다보이는 이점이 있지만...’에

주목하여 큰길을 중심으로 싱싱 청과물이 속해있는 서울 미용실 옆의 상가 주택들을 배치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각자 교과서의 묘사를 참고로 그려 본다.

교과서 98쪽/ 싱싱 청과물이 들어온 후 김 반장과 경호네의 심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김 반장과 경호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음을 알게 하고, 김 반장과 경호네의 심정을 추측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갈수록 삶이 고달픈 현실을 개탄하였을 것이다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사를 하기로 다짐할 것이다

김 반장과 경호네가 아무리 경쟁 관계라고는 해도 같은 마을 사람이니만큼, 싱싱 청과물에 맞서 함께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려는 마음을 먹을 것이다.

교과서 99쪽/ 싱싱 청과물은 어떻게 될지 추측해 보자.

경호네와 김 반장의 동맹이 싱싱 청과물을 적으로 여긴다는 내용으로 보아, 싱싱 청과물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읽기 중 활동이므로 사건 전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 학생 활동 : 경호네와 김 반장의 견제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다

경호네와 김 반장의 동맹과 계속 경쟁할 것이다.

경호네와 김 반장의 압박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길 것이다.

가게의 물건을 다른 품목으로 바꾸어 장사를 계속할 것이다.

교과서 99쪽/ 두 가게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사고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정답과 오답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학생 활동 : 어찌 보면 유치한 것인 듯 하지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먹고 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안타깝다.

두 가게가 동맹을 맺은 것은 좋지만, 다른 가게를 몰아내려하니 이웃끼리 인정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싱싱 청과물을 망하게 하려는 방법이 알밋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싱싱 청과물에는 안 된 일이지만, 두 가게가 화해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쁘다.

두 가게가 힘을 합한 것은 옳은 일이다.

돈에 혈안이 되어 싸우다가 다른 가게가 생기니 동맹까지 맺는 것이 우습다.

교과서 100쪽/ 싱싱 청과물이 과일만 취급하게 된 후로 김 반장과 경호네의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지 추측해 보자.

싱싱 청과물이 일단 한 걸음 후퇴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학생들이 흥미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이쯤에서 동맹 관계를 풀고 각자의 주력 품목만을 취급하게 될 것이다.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싱싱 청과물을 몰아 낼 것이다.

과일조차 팔지 못하도록 더 지독하게 굴 것이다.

동맹 관계는 두 가게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교과서 101쪽/ 김 반장의 행동을 싱싱 청과물 주인의 입장에서 비판해 보자.

싱싱 청과물이 과일만을 취급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 반장의 훼방이 계속되고 있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나도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찌라는 말인가?

우리도 양보해서 과일만 팔겠다고는, 끝까지 괴롭히니 참을 수가 없다.

양심껏 가게를 운영하면 될텐데, 왜 남의 장사까지 방해하며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의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살면 좋겠다.

교과서 103쪽/ 김 반장이 김포 슈퍼를 선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 관계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김포 슈퍼와는 동맹 관계이므로 싱싱 청과물만 문을 닫으면 되니까,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과서 104쪽/ 이 부분에서 인물들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자.

인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 부분만을 좁게 생각하면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이해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가게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학생 활동 : 싱싱 청과물을 망하게 하겠다는 두 슈퍼의 심보.

작은 동네에 비슷한 가게가 셋이나 되어서

가게의 위치- 작은 동네에 주변의 가게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장사를 시작한 싱싱 청과물의 실수

가게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므로.

교과서 105쪽/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작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생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드라마

속의 사건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 학생 활동 : 동네에 여러 개의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모두 경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교과서 105쪽/ 시내 엄마의 말투로 보아 시내 엄마의 성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본문에서는 인정 많고 타인을 걱정하는 따뜻한 인정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학생 활동 :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다
다른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다
인정이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교과서 106쪽/ 으악새 할아버지의 등장이 이 글에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싱싱 청과물과의 갈등도 끝이 나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으악새 할아버지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먼저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이 글에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게 한다.

☞ 학생 활동 : 계절이 바뀌는,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교과서 107쪽/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분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도한다.

☞ 학생 활동 :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교과서 108쪽/ 시내 엄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의 시내 엄마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한 것은 자신에게 직접 닥친 일이 아니었으므로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 김 반장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새로운 전과상이 생긴다니까,

자신에게도 경쟁해야 할 대상이 생겼으므로.
전과상이 새로 들어서면 자신도 경쟁하게 될지 모르니까
김 반장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서.

교과서 109쪽/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소설이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의 작품임을 다시 알려준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목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인물들을 통해 생활의 고달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을 만들며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동네 이야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면서 갈등과 이해 두 측면을 함께 다루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를 그림.

현대인의 이기적인 면을 비판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드러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을 그리고 있음.

서로 타협해 가며 살자.

삭막한 세상에서 인정을 잃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자.

<학습지 3 - 소설 구조대로 재배열하기>

원미동 사람들이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 중 어느 곳을 이용해야 할지 난감해하기 시작함

경호네가 '김포 쌀 상회'를 '김포 슈퍼'로 확장하여 다시 개업함

싱싱 청과물이 개업하고 부식거리를 팔기 시작하자 김포 슈퍼과 형제 슈퍼가 더욱 힘들어짐

김반장의 횡방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싱싱청과물 사내와 김 반장 사이에 주먹 다툼이 일어남

사람들이 집에서만 지내는 겨울 무렵, 특별한 화젯거리가 없던 원미동에 난처한 일이 생김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한 것에 화가 난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함

싱싱 청과물이 폐업하고 나간 자리에 전과상이 들어 오게 되자 씨니 전자의 시내 엄마가 걱정스러워함

장사가 잘 안되는 원미동 사람들은 경호네의 사업 확장을 부러워하고 부지런한 경호네의 노력으로 김포 슈퍼의 매상이 오르기 시작함

김반장과 경호네의 가격 경쟁으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눈치가 느린 사람은 손해 보는 느낌마저 받음

김반장과 경호네의 동맹 때문에 싱싱 청과물에서 부식 장사를 포기함

<읽기 중 활동 분석>

읽기 활동 결과, 학습자들은 과제를 통해 소설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본문을 직접 읽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별 무리 없이 읽기 중 활동에서 준비된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읽기 중 활동은 먼저, 정보 수집 단계를 거쳐 모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작품 전체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작품을 사건 단위로 나눈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좀 더 확장된 사고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사실적인 이해 뿐 만 아니라, 작품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추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물론, 이는 대상 텍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사는 대상 텍스트에 따라 적당한 속도로 활동들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분)>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내용, 과제를 확인한다. 본시 학습 내용을 안내한다. - 소모임 별 활동을 지시한다.	소모임 별로 학습지에 제시된 내용을 완성한다.	1'	
전개	소모임 별 발표를 진행한다. -내용은 소모임 별로 1~2개 정도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30'	읽기 후 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다른 소모임의 발표가 이루어질때 경청하도록 주의시킨다. -발표가 끝나면 정리한다 자기 점검 확인표를 나눠주고 체크하도록 한다.	소모임 별로 발표한다. 자기 점검 확인표에 솔직하게 체크한다.	13'	동 학 습 지 자 기 점 검 활 동 확 인 표
정리	수업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1'	과 제 학 습 지

3) 읽기 후 활동

이 단계는 소모임 별 활동 단계로서 학습지의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비교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 설득하고, 양보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생들이 작성한 의미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질문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찾아내게 된다. 정해진 답은 없으며, 학생들의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통제하는 협의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지의 질문에 의한 학습 결과>

◎ 이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말해보고,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학생 활동

- ▶ 시간적 배경- 80년대 유선 방송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안테나를 설치해 티비를 보던 시절.
난방을 위해 연탄을 주로 사용하던 시대.
- ▶ 공간적 배경- 부천시 원미동 23통 5반
소도시의 작은 동네
경기가 좋지 않은 도시 변두리 지역
원미동의 상업 지구
- ▶ 작품이 쓰여진 당시 사회의 모습-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가 지금보다쌌다.

◎ 주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 보자.

☞ 학생 활동

- ▶ 김 반장과 경호네 -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가, 제 3의 적이 나타나자 이해관계에 의해 동맹을 맺은 관계이다. 경쟁관계에 있었을 때는 서로 적대시했을 것이고, 동맹관계를 맺었을 때도 완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 싱싱 청과물 사내와 경호네, 김 반장 - 경호네와 김 반장은 동맹을 맺어 싱싱 청과물 사내와 대립하는 관계이다. 둘은 싱싱 청과물을 경쟁자라 생각하고 내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싱싱 청과물 사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들이 괴롭히자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만다.
- ▶ 고흥택과 시내 엄마 - 둘 다 원미동 주민으로 경호네와 김 반장의 싸

움을 지켜보는 관계이다. 고흥택은 자기 잇속만 챙기고, 시내 엄마는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김 반장을 욕하고 고흥택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시내 엄마에게 닥치게 되자, 고흥택은 오히려 시내 엄마를 약올리고, 시내 엄마는 발끈 하면서 태도가 돌변한다.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소설에 나타난 주요 사건을 3~4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 학생 활동

- ▶ 1. 경호네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하면서 김 반장네 형제 슈퍼와 갈등이 시작되고, 가격 경쟁으로 번지게 된다.
- 2. 싱싱 청과물이 새로 개업하자 경호네와 김 반장은 동맹 관계로 돌변하여 싱싱 청과물의 영업을 방해하고, 결국 싱싱 청과물은 문을 닫게 된다.
- 3. 빈 가게 자리에 전과상이 들어온다고 하자 씨니 전자의 시내 엄마는 걱정이 시작된다.
- ▶ 1. 경호네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이름을 바꾸고 전에 김 반장네가 팔던 품목을 팔기 시작했다.
- 2. 그러자 반찬거리만 팔던 김 반장도 쌀과 연탄을 들여놓고 팔면서 두 가게의 싸움이 시작된다.
- 3. 눈치 없이 싱싱 청과물이 개업하여 부식거리를 팔자, 경호네와 김 반장은 동맹을 맺어 싱싱 청과물 주인과 싸우고 결국은 문을 닫게 한다.
- 4. 사람들이 너무했다고 수군대는 가운데, 새로 전과상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김 반장을 욕하던 시내 엄마는 갑자기 태도를 극에서 극으로 바꾸고 화를 내며 걱정한다.

◎ 주변에서 소설 속의 사건들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

☞ 학생 활동

▶언젠가 티비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다. 동네 구멍가게가 있었는데..맞은편에 슈퍼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파격세일로 20%나 되는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었다. 동네 구멍가게는 할 수없이 30%로 가격을 내리고, 슈퍼는 그에 질세라 50%로 까지 가격을 내렸다고 한다. 구멍가게 사장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슈퍼에 강도로 위장하고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고 와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슈퍼 주인은 그의 부인에게서 돈을 강요했고, 결론은 구멍가게주인은 기물파손죄로, 슈퍼주인은 협박죄로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둘은 할 수 없이 합의를 했고. 슈퍼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동네에 24시간 영업을 하고 깨끗한 편의점이 생기면서 근처의 구멍가게는 결국 문을 닫고, 얼마 후에 공사를 하더니 옷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동네에는 한 골목에 무려 네 군데의 부동산이 몰려 있다. 그런데 원미동 사람들의 상황과 달리 동네에 상가가 많아서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주인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 한 부동산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동네에 있는 고깃집들은 삼겹살, 갈비 등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게마다 거의 비슷한 고기들을 팔고 있다. 그런데 가게들은 서로 방송을 탔다고 광고하면서 경쟁한다. 방송에 나온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간판마다 음식 프로그램 화면을 대형으로 캡처해서 걸어놓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게마다 고기 1인분의 값은 똑같다는 것이다. 한 가게만 가격을 할인하면 다른 가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가격으로 경쟁하게 된다면 결국 가게 주인들이 손해 보게 될 것이 뻔하므로 주인들끼리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원미동 사람들처럼 경쟁하는 가게들 사이에서 싼 가격으로 이익을 볼 수는 없다.

◎ 이 작품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 학생 활동

- ▶ 김포슈퍼와 형제슈퍼
- ▶ 밥그릇 싸움
- ▶ 원미동 그 사람
- ▶ 싱싱 청과물 사내의 눈물
- ▶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 우리 가게로 오세요
- ▶ 갈등의 원미동
-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 ▶ 우리, 이웃 사촌 맞아?

◎ 김 반장과 경호네, 시내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서 마무리해보자.

☞ 학생 활동

- ▶ 둘은 협의 하여 김 반장네는 과자나 식품류를 팔고 경호네는 연탄과 쌀을 파는 업종으로 겹치지 않는 물건을 팔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 ▶ 두 슈퍼는 동맹 때처럼 같은 값을 받고 같은 값의 물건을 팔면서 살아갈 것이다. 전파상이 새로 개업한 후, 사람들은 시내 엄마 가게랑 새로 온 가게랑 갈등을 벌일 줄 알고, 또 다시 가격 경쟁이 시작 될까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전파상은 그저 서로 인사만 주고 받는 사이일 뿐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두 가게가 공존해 나갔다.
- ▶ 새로 문을 연 전파상의 주인은 바로 예전 싱싱 청과물 사내였던 것이다. 시내 엄마를 알아보고 장사를 시작했던 남자는 이번에도 태도를 완전히 바꾼 시내 엄마에게 밀려 한 달 정도 후에 문을 닫고 말았

고, 사람들은 시내 엄마에게 옛되고 고운 얼굴이지만 속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며 은근히 경계했다.

▶ 시내 엄마는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새 전파상에 밀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 작가 양귀자가 이 작품을 창작한 동기는 무엇일까.

☞ 학생 활동

▶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

▶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하면서 교훈적인 내용도 함께 전달하고 싶어서 창작했을 것이다.

▶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창작했을 것이다. 잘못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 소설로 읽고 본인이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고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작했을 것이다.

<소집단별 발표 활동>

소집단 별로 구성된 자료를 가지고 모둠별로 발표하고, 타 소집단과 비교해본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사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발표는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읽기 후 활동 분석>

이 활동은 학습자 개인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해 좀 더 확장된 사고를 위한 단계이고, 동시에 소집단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 이 활동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우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모임 내에서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소모임의 발표를 들을 때는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집단 내의 의견 조합 활동과 발표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익숙해지도록 자주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산만해지기 쉬운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기 점검 활동>

수업 활동이 끝나고, 학습자들이 수업 과정의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활동의 통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수업 방법의 효과와 구성주의에 의한 소셜 지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 작성>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을 작성한다. 개인별 혹은 모둠별로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을 작성하고, 작품을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독서 감상문 형식은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획일적인 독후감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주고, 독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지 4 - 자기 점검 활동>

항 목	평 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작품 ‘원미동 사람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11	24	26	7	3
2.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가?	13	28	15	8	6
3.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파악을 위해 능동적으로 의미 파악하고자 노력했는가?	6	17	23	19	5
4.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제시한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었는가?	4	23	30	10	3
5.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작품의 다음 부분에 제시할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 예견하면서 읽었는가?	8	12	34	7	9
6. 협력 학습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었는가?	25	34	8	3	0
7. 소집단에서의 역할 분담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	14	28	14	11	3
8. 소집단별 협력 학습이 ‘원미동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16	23	18	12	1

<자기 점검 활동 분석>

자기 활동에 대한 점검은 총 2개 학급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답지 중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함께 처리하였고, ‘조금 아니다’와 ‘아니다’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보았다.

1. 작품 ‘원미동 사람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 이 항목에서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습자가 총 35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학습자는 10명으로, 상대적으로 다수의 학습자들이 쉽게 내용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업 제재인 ‘원미동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의 작품이므로, 학습자들은 부담 없이 읽고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읽기 활동에서 진행한 정보수집하기와 사건 단위로 나눈 부분에 대한 활동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2.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가?

- 이 질문은 작품 독해 과정에 대한 메타 인지 조절에 관한 항목이다. 메타인지전략에 의한 독해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과정이 작품 이해 전체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 이 과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인지와 조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 과정 안에서 도입한 메타인지전략에 대해 제대로 인지한 학습자는 41명으로 전체의 약 58.5%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메타인지전략에 의한 읽기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학습자들은 학습지에서 유도하고 있었던 작품 이해에 대한 과정, 즉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절하는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3.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파악을 위해 능동적으로 의미파악하고자 노력했는가?

- 여기에서는 전체 23명, 32%의 학습자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완전히 능동적으로 독해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이며, 텍스트의 특성상,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었다는 의미도 찾아낼 수 있다.

4.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제시한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었는가?

- 전체 학습자의 38%인 27명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42%는 보통이라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보통이라고 생각한 학습자들은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라는 학습지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역시 3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습자들이 충분히 능동적인 자세로 독해 과정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5.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작품의 다음 부분에 제시할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 예견하면서 읽었는가?

- 이 항목에서는 28%의 학습자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22%의 학습자는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능동적으로 예견하는 활동은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6. 협력 학습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었는가?

- 84%의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지의 질문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으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닌, 학습자들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소집단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견이 특별히 맞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거나 하는 갈등을 겪지 않고 완만하게 협력 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집단을 편성할 때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도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7. 소집단에서의 역할 분담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

- 전체 60%의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20%의 학습자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소집단 활동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활동은 소수의 우수 학습자가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도태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 한 사람이 모든 소집단의 활동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고, 교사의 지나친 간섭은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소집단 구성원이 활동에 공평하게 참여하게 하려면 소집단의 평가 방법을 달리 하는 데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 소집단별 협력 학습이 '원미동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이 항목은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한 의사소통 과정이 작품 이해에 효과적 인가를 묻는 것이다. 전체 학습자의 55.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18.5%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우선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점검 자료에서는 소집단별 협력 학습이 가지는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는 선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절반 정도의 학습자가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소집단 협력 학습 과정에 좀 더 충실히 참여하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방식의 학습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교사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감상문 쓰기 활동>

▶ 등장 인물과 다른 작품의 인물 비교를 통한 독서 감상

3학년 2반 김희정

- 자미부인과 김 반장 비교하기

드라마 ‘해신’에서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미부인’은 상업과 무역 등에서 엄청난 재물을 모은 재력가이다. 자미부인은 장사를 하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신라와 적군 관계에 있는 상대편에 합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해적과 손을 잡고 무역을 위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다른 상단의 상선을 공격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재물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자미부인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은 하나 둘 씩 자미부인을 떠나게 되고, 화려한 자미부인의 삶은 허무하고 외롭다.

우리의 김 반장은 자미부인처럼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작은 사업가 이므로 자미부인과 다른 점이 더 많다. 그리고 물론 처음부터 김 반장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 반장은 자미부인과 비슷한 면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김 반장은 경쟁 상대가 생기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한다. 김 반장에게도 물론 사정이 있고, 김 반장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동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반장의 대처 방법은 결국 자기 살을 깎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과도한 경쟁이었다. 그리고, 제 3의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김 반장은 그동안 적이었던 경호네와 손을 잡는다. 자미부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맹을 맺은 두 가게는 자신들이 경쟁했을 때보다 더욱 심한 방법으로 제 3의 경쟁자를 괴롭힌다. 서로 타협하여 함께 잘 지내볼 노력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연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방해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반장의 모습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멈출 줄 모르던 위험한 자미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소설에서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 반장의 결말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미부인을 옆에서 지켜보던 정화 아가씨는 자미부인이 친 딸처럼 여기는 존재였으나 결국 자미부인을 떠나고 만다. 그것처럼, 김 반장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김 반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원미동 주민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 뒷 이야기 쓰기

- 김 반장과 경호네의 뒷 이야기 쓰기

3학년 1반 이수진

싱싱 청과물 사건이 마무리된 후 원미동은 어느 정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 반장과 경호네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여자들은 이제 재미 볼 일도 끝났겠다 하는 마음에 김 반장과 경호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두 가게를 거의 비슷하게 이용하였다.

그런 상태가 며칠 유지되나 싶더니 김 반장은 경호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경쟁이 시작되기 전처럼 서로 다른 품목들을 취급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해준다면 김 반장 자신도 경호네에서 취급하는 쌀과 연탄은 절대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경호 아버지는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따뜻해지고 곧 여름이 올텐데 누가 연탄을 얼마나 들여놓겠느냐며 그것은 힘들겠다고 하였다.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경호 아버지를 보고 김 반장은 경호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경호 아버지도 젊은 나이네 줄줄이 달린 식구들 때문에 고생하는 김 반장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그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호 아버지도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던 김 반장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경호 아버지도 김 반장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김 반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경호 아버지에게 친형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게를 모두 내놓았다. 둘 다 가게를 내 놓고 가게에 남아 있던 물건은 싼 값에 사람들에게 팔아

치웠다. 원미동 주민들은 모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될 해먹고 살 것이냐, 어디로 이사를 갈 계획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김 반장과 경호 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웃음으로 대할 뿐 별 말이 없었다.

봄이 되면서 뽕뽕 얼었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두 가게는 모두 다른 주인을 찾았다. 고흥댁도 간만에 별이가 잘 되어 기쁜 표정이었다. 두 가게가 모두 정리된 뒤, 고흥댁의 강남 부동산에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가 찾아왔다. 둘은 그 동안 짬해 두었던 공터 옆 빈 점포 두 곳을 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돈을 모아 두 점포를 헐어 큰 하나의 점포로 개조했다. 경호네 식구와 김 반장네 식구 모두 팔을 걷어 붙이고, 새 점포를 페인트 칠 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꾸미더니, 멋진 새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원미동 슈퍼마켓’ 이었다. 이렇게 둘이 힘을 모아 깨끗하고 큰 가게를 연 김 반장과 경호네는 전에 김포 쌀 상회와 형제 슈퍼에서 취급하던 품목들을 같이 취급하면서 가게를 확장해서 연 것이다.

더 이상 동네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인사하는 김 반장과 경호네 부부에게 원미동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원미동 슈퍼마켓’도 진심으로 번창하기를 빌었다. 원미동 주민들이 애용해준 덕분에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고, 김 반장과 경호네 부부도 이익을 똑같이 나누면서 형님, 동생, 형수님 하면서 사이 좋은 사이가 되었다.

- 시내 엄마의 뒷 이야기 쓰기

3학년 2반 오주희

고흥댁이 말한 예고편대로 싱싱 청과물이 있던 자리에는 새 주인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쭈군쭈군 대는 것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눈치없는 새 주인은 예전에 싱싱 청과물 사내가 그랬던 것처럼 의욕이 넘쳤다. 가게를 손보고 전과상을 열더니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고 다녔다. 그러나 원미동 주민들은 저번에 있었던 싸움 때문에 새 주인의 눈길을 피하고, 길에서 새 주인이 무엇을 물어보아도 피해버리곤 하였다. 그때까지 시내 엄마는 묵묵히 장사를 하면서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있

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새 주인은 고흥택의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동네 분위기도 이상하고 손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흥택이 처음 계약을 성사시킬때 했던 말들과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고흥택은 계속 원미동은 장사 잘되는 동네이고, 가게 자리도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면서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둘러댄다. 새 주인은 또 그 말을 믿고 가게에 좋은 물건을 들여놓으면서 홍보를 시작한다.

그 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내 엄마도 더 이상 참고 있지는 않았다. 직접 새 전파상에 찾아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경쟁에 뒤질 세라 열심히 장사하면서 좋은 물건을 구해와서 들여놓고, 특히 지금 인기가 좋은 유선 방송이 잘 잡히는 최신 안테나를 들여 놓고 시내 아빠가 직접 설치해주고 AS까지 해주고 다니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저번 슈퍼의 싸움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시내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새 전파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참다 못한 새 전파상의 주인에게 64번지 새택이 전에 있었던 동네 사정을 솔직하게 들려주고야 말았다. 화가 난 새 주인은 거짓말을 한 고흥택에게 달려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고흥택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뻔뻔스럽게 굴다가 고소하겠다는 말에 잘못을 뉘우친다. 그러나 새 주인은 결국 고흥택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받아내 가게를 정리해 이사를 가 버렸다.

큰 손해를 본 고흥택은 원미동 여자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돈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영업을 시작한다. 원미동 여자들은 그런 고흥택이 딱해 보여서 다시 고흥택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잘 대해준다.

▶ 인물에게 편지 쓰기

- 알미운 고흥택 아줌마에게

3학년 1반 김도연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동 사람들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친구들과하고는 거의 문자메세지만 보내고, 이메일만 쓰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참 어색하네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꿈뽕 열어 붙었다고들 하시던데, 수입이 줄어드셔서 생활하기 많이 힘들시겠어요. 봄이 되고 이사철이 오면 다시 좀 살아날꺼예요, 힘내세요, 아줌마.

그런데 시내 엄마를 비꼬면서 놀리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내 엄마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전과상 계약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원미동 주민이었다면 솔직히 좀 보기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원미동 아줌마들 거의 다 저랑 같은 생각일걸요.

물론, 전과상이 들어오면 시내 엄마가 괴롭겠죠. 형제 슈퍼랑 김포 슈퍼처럼 곤란한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구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고흥댁 아줌마 사정도 물론 잘 알아요. 그래도 아줌마는 새로 전과상을 열게 될 주인에게 그 동안 원미동 동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주어야 했어요. 그 점은 아줌마도 부정 못하실꺼예요, 맞죠?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면 새로 이사 올 사람들은 그 빈 가게를 계약하는 것을 망설였을 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다른 동네로 가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줌마는 간만에 온 기회를 놓치게 되셨을 테고요. 하지만 당장 돈 몇 십 만원 때문에 당사자들은 겪게 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경기가 좀 풀리고 여유가 생기시면, 구전부터 챙길 생각보다는 다른 주민들 생각도 좀 해 주시면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았으면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부동산 잘 되길 바라구요, 안녕히 계세요.

▶ 등장 인물 인터뷰 하기

<경호네 아버지 인터뷰하기>

3학년 1반 유수영

질문: 안녕하세요? 00일보 이기잡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아버지: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김포 슈퍼의 경호 아버집니다.

질문: 먼저, 이번에 가게를 확장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경호 아버지: 아, 네네.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지요.

질문: 그런데, 이번에 가게를 확장하시면서 과일이나, 채소, 기타 부식거리를 포함해 많은 품목들을 새로 취급하시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형제 슈퍼의 취급 품목과 겹치게 되는 것아닙니까?

경호 아버지: 아,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봐야죠.

질문: 그러면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은 기분이 어떨까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쟁 가게가 생겨서 손님을 뺏기고 있는 입장인데.

경호 아버지: 아,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뤄놓은 것이고, 손님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가게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김 반장네 가게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 주시는 것은, 제가 단지 새로 가게를 확장해서가 아니라, 김반장네 가게에 비해 서비스도 좋고, 품질도 월등히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김 반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안계십니까?

경호 아버지: 공교롭게도, 한 동네 마주보고 살면서 이렇게 되어 저도 난처합니다만, 솔직히 김 반장도 이번에 배울게 많을 겁니다.

다. 그 동안 그런 식으로 가게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장사하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김 반장은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김 반장 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경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호 아버지: 아, 예. 저는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 반장네와 저희가 비록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가게이지만, 가격과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품의 질에 있어서 저희가 앞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손님들께서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김 반장 인터뷰 하기>

3학년 2반 김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23통 5반 김 반장님. 원미동 소식지에서 나온 김기 잡니다.

김 반장: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요잉. 반갑습니다.

기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한 사연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입니까?

김 반장: 아, 예. 지가 그 동안 팔순 할머니에, 다리 다치신 아버님에, 어머님에 네 명이나 되는 동상들까지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 많은 식구들 입이 형제 슈퍼 하나만 쳐다보고 살아온 것이지라. 지도 열심히 해 볼라고 일도 벌였다가, 어찌 재수가 없을라니까 사고가 나서 그놈 처리하나라고 여지껏 허리 한번 못 펴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같은 동사는 양반이 가게를 확장하시면서 우리 가게가 팔았던 것들을 버젓이 들이대놓고 팔기 시작하니, 손님 뺏기는 저희는 기가 탁탁 막히지라.

기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

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김 반장: 앉아서 당허고 있을 수는 없지요. 상대방에서 먼저 영업 구역 침범하고 나온 마당에 저도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즈이도 질 좋은 놈들로다가 쌀이랑 연탄이랑 들여놓고 일대일로 경쟁해야지라.

기자: 그렇군요. 그럼 형제 슈퍼에서 생각하시는 판매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김 반장: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싸게 드릴 계획입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상도덕까지 무시하고 장사하는 데 가서 사겠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상대방 김포 슈퍼는 서비스도 아주 친절하고 물건들도 깔끔하고 질도 좋고 김 반장님처럼 가격을 할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반장: 우리도 못할 거 있습니까? 온 식구 밥줄이 달린 가젠데. 우리도 그만큼 노력할겁니다. 김포 슈퍼에 절대 뒤지지 않게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 반장일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모르는 얼굴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동네 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은 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싸움인지 다들 자알 알고 계실꺼이니 말입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제가 잘 정리해서 소식지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김 반장: 아이고,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 등장인물의 입장 변호하기

<김 반장을 변호하기>

3학년 2반 서지은

김 반장은 젊은 나이에 생계를 짊어진 가장이다. 김 반장은 동생과 어머니, 할머니와 살고 있다. 그런 그에게 억척스러움이 없다면 그 많은 식구들과 살아 갈수가 없을 것이다. 김 반장은 그래서 무모한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었친 데 덧친 격으로 과일가게가 문을 열자, 적자 생존의 법칙처럼 김포 슈퍼와 동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과일 가게가 한 달 만에 문을 닫은 것은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셋은 그 경쟁 속에서 점점 힘들어 하고 셋 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 반장을 독하다고들 하지만 그로선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호네를 변호하기>

3학년 2반 한지민

경호네 입장에서 보면 가게의 확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노력이다. 김 반장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게를 위해 투자하고 우리처럼 더 노력했어야 했다. 손님들이 깨끗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팔고, 친절할 가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호네처럼 정직하게 노력하지 않고, 안면이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가게를 찾아 달라고 하는 김 반장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을 더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싱싱 청과물 사내가 그렇게 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가 세 군데나 된다는 것은 결국 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싱싱 청과물 주인도 좀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광고 형식의 감상문 쓰기

<형제 슈퍼 광고하기

- 마이크로 동네 주민들에게 광고하는 김 반장의 광고 멘트>

3학년 1반 김주희

아이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반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어떻게 방바닥 따뜻하니 때고 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가 이리코롬 확성이까정 잡게 된 것은, 이참에 우리 형제 슈퍼에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아주아주 질 좋은 쌀을 아주아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공급해 드리고자, 반장된 책임감과 의무로서, 주민 여러분께 봉사하는 맘으로다가, 우리 고향의 일등 쌀! 호남 평야의 계화미를 공급해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방바닥 따뜻하게 때시고 사시라고 연탄을 특별히 대리점 대우로 한 장에 2원 씩 싸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이, 거기 64번지 새택! 여기 와서 오늘 저녁 반찬 거리 골라 가서! 찬거리 뿐이야? 사과, 귤, 내가 새벽같이 도매시장 서 떠어온 무지하게 맛난 것들이여. 한번 잡쉬 봐. 아줌마! 이번엔 우리 연탄도 좀 때요! 이번 참엔 우리 것도 들여놓아! 우리 것도 팔아 주랑게! 아니 이렇게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먼저 내 밥줄을 건드린 것이 누군디 내가 쌀 못팔고 연탄 못팔겠어, 안그려요? 고흥댁?

<김포 슈퍼 광고하기

- 전단지의 카피 문구 만들기>

3학년 1반 고지선

GOOD BYE!! 김포 쌀 상회!

저희 김포를 사랑해 주신 원미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호 아빠, 엄마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김포는 잊어 주십시오!

김포 슈퍼 마켓으로 거듭난 김포 쌀 상회

저희 가게에 오시면

밥맛을 확실히 보장하는 쌀!

싱싱하고 깨끗한 과일!

파릇파릇 생기 있는 야채!

저녁 식탁 걱정 싹 없애드리는 부식거리!!

모든 것들이 주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확실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수업 현장에서 교사는 학습의 통제권을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배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학습의 주도권은 학습자에게 있으며 지식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구성되고 구성된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7차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문학 목표의 달성은 지식과 교과,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교수-학습 과정을 새롭게 보는 구성주의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학습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성주의가 말하는 기본 가정은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 구성되며, 지식은 맥락적이고, 지식은 사회적 협상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식 주체로서 학습자 개인의 의미 구성에 있어서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지식의 타당성이 검토되는 사회적 협상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소설 교육 방안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한 소설 수업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이 소설 수업 방안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이해 과정에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협응 과정으로서 소집단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구성주의적 수업의 효과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그랬듯이 본 연구에서도 구성주의적인 수업에 의해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하고, 협동에 의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학습자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이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소설을 지도하는 것은 시도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설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크게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목표와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단원

의 학습 목표, 작게는 단위 수업에서 교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방법은 달성하고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기존의 모형을 검증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설정한 수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산만하게 활동들만 하다가 무엇을 지도하려 했는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학습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조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구성주의에서는 교사는 철저하게 안내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 현실에서 이 같은 역할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교사가 안내자의 역할만을 할 수 있으려면, 학습 환경도 실제 환경을 반영해야 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학습자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 경험을 쌓아 익숙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구성주의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수업 진행 중에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구성주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수업에서보다 훨씬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과서도 바뀌고 학습자도 변화한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이러한 현실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학습 방법이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창의적인 태도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설 교육 방안은 이러한 현실 상황에 가능성과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구성주의에 의한 소설 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구성주의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교사와 학습자들부터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상호 협동적인 관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위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교사들의 노력과 전문성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1999.

이인제 외,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 연구회, 1997.

2. 저서

강인애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문음사, 1999.

강인애 외,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1999.

강인애,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2003.

구인환,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2.

김종문 외,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김판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노명완 외,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94.

노명완 외,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박이정, 2003.

노희관·이용남, 『교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과학사, 2000.

박상호 외, 『교육방법·교육공학』, 집문당, 2003.

박성익,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교육과학사, 1999.

박성익, 『교육공학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과학사, 1998.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2001.

박인기 외,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200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이강엽 외, 『디지털 시대의 국어과 수업모형』, 평민사, 2002.
이경화,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3.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이옥형 외, 『교육심리학』, 집문당, 200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1997.
임규혁,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1.
정동화, 이현복, 최현섭,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1989.
조연주 외,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1997.
조영식, 『창조적 독서 교육』, 인간과 자연사, 1999.
최현섭, 『구성주의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2000.

3. 번역서

Ausubel, The Psychology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윤기욱 외,
『수업 모형』, 형설 출판사, 1993.
C.M. 라이거루스, 박성익, 임정훈 역, 『교수설계의 이론과 모형』, 교육과
학사, 1996.
R.Richey, 김종배, 김희배 역, 『수업체제 설계』, 교육과학사, 1993.
S.J. 슈미트·H. 하우스프트마이어, 차봉희 역, 『구성주의 문예학』, 민음사,
1995.
J. 슈미트, 박여성 역, 『구성주의』, 까치, 1995.
재클린 브룩스, 마틴 브룩스, 『구성주의 교수학습론』, 백의, 1993.
Walter Dick, Lou Carey, 김형립, 김동식, 양용칠 역, 『체계적 교수설계
이론과 기법』, 교육과학사, 1996.

4. 논문

- 박인기, 「문학 제재의 수용특성과 교수·학습의 조건」, 『산청어문』 14·15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6.
- 박태호, 「반응중심 문학감상 전략과 교수 학습 방법」, 『청람어문학』 13집, 1995.
- 이경환, 「문학작품을 보는 관점과 읽기의 두 가지 방향」, 『청람어문학』 제 17집, 1997.
- 이상구, 「반응중심 문학교육에 대하여」, 『유천 신상철 박사 기념 논총』, 문양사, 1996.
- 이채연, 「하이퍼미디어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 전략」, 『어문학』 60집, 1997.
- 이채연, 「디지털 시대의 문학교육」, 『문학과 교육』 5호, 문학과 교육 연구회, 1998.
- 이채연, 「WBI를 이용한 국어교과 개별화 수업설계와 활성화 방안」, 『국어교육』 9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 경규진, 「반응중심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3.
- 강진구, 「구성주의적 국어수업이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성하,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 고전 소설 지도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성탁, 「학습자 중심의 소설 수업 모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유경, 「과정 중심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응균, 「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론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노태열, 「학습자 중심의 소설 지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 문학의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경희, 「메타인지 자기조정 학습전략의 인지적·정의적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혜경, 「소설 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양윤경,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현진, 「토론 교수-학습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대용, 「7차 문학 교육 과정의 원리를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영희,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의 체계화와 지향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만석, 「구성주의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의신, 「학습자 활동 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주희, 「7차 국어교과서 지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복,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중심 수업의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천우, 「소설 교육의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향숙,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장희정, 「정교화 전략을 활용한 읽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초인지 및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현주, 「소설 중심의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Constructivism and the plan education of novel

Choi Seo Ri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Literature education until now have achieved with objectively literary theories. Teacher have done part that have Supreme authority commanding the armed services of studying and distributes objective knowledge to learners, and learners are recognizing literature to subject that master know-how about literature. May look for the method in educational philosophy enemy of a composition week that see knowledge and subject matter, artfulness and learner, and professor - a course of study newly to bring near in extension of literature ability and development of literature culture that is target of the seventh course of study in this actuality.

Constructivism is against education of literature in past, supplies methodology that count intelligent process of individual and construct communic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Because of these possibility, studies that wish to compose class pattern in conjunction with a language, literature subject are achieved much Constructivism theory. When examined laying stress on the recent several discussions, could find fair result in these studies but problems appeared to solve some. First, in text comprehension and accommodation process, problem about individual learner's text comprehension activity who can speak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proposition activity was detected. And could confirm problem about small group cooperative instruction utilizing importantly in almost most studies and problems about class plan that take advantage of media.

Considered so that individual learner's meaning comprehension process may be made first of all introducing concept whether it is meta by first to ready master-learning plan that can supplement and take advantage of practically such problems. If comprehension process for target text is not preceded in learner inside, interaction attained between learners can not but become that is meaningless. Individual learner's text forefinger activity can attempt through various read strategies that utilize whether is deriving to structure and understand text contents meta. And groupuscule cooperation through enough preview teacher of do it so that individual learning and small group instruction may be consisted together under that is minute, and class progress that use multimedia regimen considers various danger and do to utilize by resources that is suitable to master-studying.

Readied practical master-learning plan being based on Constructivism in IV chapter with these discussion. Step of teaching - learning who formality of studying composes and details to be consisted of plan, class, stage of estimation·feedback - studying divides into individual learner's text comprehension process and conference process between members and composed. First, individual learner's text comprehension process confirms studying target and progresses diagnostic studying, and comprehension process accomplishes cast individual learner's forefinger red for work. Conference process between members, the second step,

organizes groupuscle and progresses cooperation studying through conference activity, and composed in internalization process through groupuscle announcement activity and own checking activity, and various work appreciation expression activity. And V chapter analyzed effect of above professor - professor who progress actuality class activity because manufactures all class process inside of two class quantity with studying plan and presented sequence and sees with him - studying plan.

Novel education plan that propose here through this activity expect, and expect furtherance of more systematic learning environment and effort of teachers and active carriage of learners that problem can present possibility in a lot of literature education spots yet.

